

# 《교양: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인기 스타’의 부실한 내면



글\_강대진 서양고전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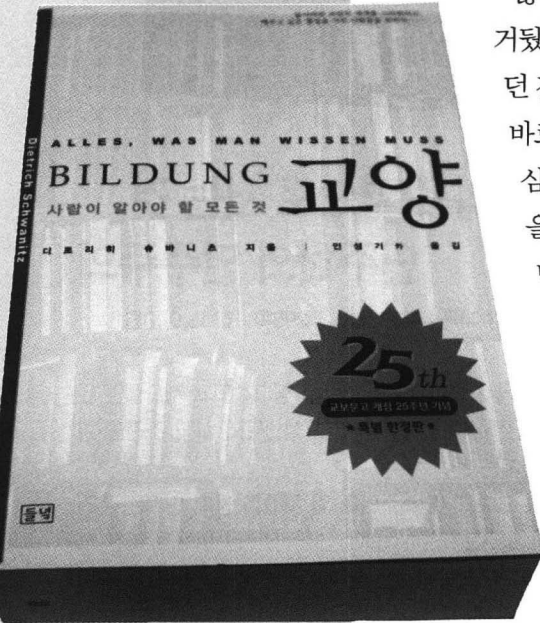
원문 대조에는 Goldmann 판, D. Schwanitz, *Bildung: Alles, was man wissen muß*, 2002를 이용하였다. (필자 주)

많은 이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 책은 몇 년 전에 거의 ‘돌풍’이라고 할 만큼 성공을 거뒀던 책이다. 너무 두껍고 비싸서 도무지 팔릴 것 같지 않은 책이 40쇄를 넘어섰던 것이다(얼마나 더 팔렸는지는 모르지만, 유행에 둔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40쇄본이다). 책 한 권으로 인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야심 찬 기획에, 교양에 목마른 독자들이 다투어 호응했던 모양이다. 평소에 교양을 흠모해오던 나도 물신표(勿失好機), 늦었지만 대세를 좇고자 했다. 하지만, 아뵘새! 이 책은 앞부분부터 나를 배반하고 들어갔다. 유럽 문화사를 시대 순으로 가르치는 이 책은 당연히 맨 앞부분에서 내 전공이라고 할 희랍, 로마의 문화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기이하고 표현 또한 자못 방자하다. 저자는 우선 희랍적 전통에 대해 설명한다. 그런데 여기서, 희랍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신탁의 신 아폴론은 “델포이 섬에 사는”(48쪽)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가본 사람이 많겠지만 델포이는 섬이 아니라 육지에, 그것도 아주 가파른 산의 비탈에 자리 잡고 있다. 원문을 보니 그냥 “델포이”(von Delphi, S. 41)라고 되어 있는데, 역자께서 ‘델로스 섬’과 혼동한 모양이다.

“신탁이 필요하면 여사제가 마약을 먹고 몽환상태에 빠져들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중얼거렸다.”(48쪽) 다른 말들은 다 재미있게 표현하느라 그랬다 해도 델포이 여사제가 마약을 먹었다는 것은 심한 표현이다. 이 여사제가 바위틈에서 올라오는 가스에 취해 몽환상태에 빠졌다는 말도 있고, 올리브 잎을 씹어서 그랬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정말 그랬는지는 분명치 않으며, “마약”은 당치도 않다. Droge(S. 41)라는 말이 너무 강하게 옮겨졌다.

그다음부터는 신화에 대한 소개다.

“외눈박이 거인족(퀴클롭스들이 번역하자 우라노스는 이 거인족들을 타르타로스(일종의 편안한 연옥-유킨이)로 내던졌다.”(48쪽) 구구절절 잘못된 문장이다. 우선 퀴클롭스는 우라노스에게 반역한 적이 없고, 우라노스는 이들을 타르타로스로 던져버린 적이 없다. 물론 우라노스가 퀴클롭스들을 땅속에서 못 나오게 한 적은 있다. 그러나 그곳은 그냥 가이아의 깊은 곳이지 타르타로스가 아니었다. 더구나 이 감금은 퀴클롭스들뿐 아니라 우라노스의 자식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또 그 이유는 우라노스가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이지, 그들의 반역을 징벌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한편 유킨이가 붙였다는 주석도 잘못되었는데, 타르타로스는 ‘역겹고 곰팡내 나는’(<신들의 계보> 739행) 형



《교양: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  
디트리히 슈바니츠 지음 | 안성기 옮김 |  
들녘 | 768쪽 | 값 35,000원

### ●이 글을 쓴 강대진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서양고전학 전공과정에서 플라톤의 <향연> 연구로 석사, 같은 과정에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저서로는 <잔혹한 책읽기>, <신화와 영화>, 역서로 <아폴로도로스 신화집>이 있다.

별의 장소로 되어 있어서 결코 “편안”하다고 할 수 없는 곳이다(이것은 원래 역주가 아니라 저자가 넣어준 설명 (eine Art komfortable Unterwelt, S. 42)인데, 어쩌다 그랬는지 “웁긴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바람에 역자가 덤테기를 쓰고 말았다).

위의 사례는 거의가 저자의 잘못이다. 역자의 잘못이라면, ‘퀴클롭스’에 붙은 수식어(die rebellischen Zyklopen, S. 42)를 동사로 풀어서 뜻이 너무 강해지도록 했다는 것 정도다.

크로노스가 자식들을 “모두 잡아먹었다”(49쪽)고 한 것은 표현을 달리 바꿨으면 좋겠다. ‘잡아먹는다’는 말은 대개 칼을 대어 ‘잡아서’ 먹거나, 맹수가 그러하듯 찢어 먹는 경우에 쓰는 말인데, 크로노스의 자식들은 산 채로 아비에게 삼켜졌다가 나중에 다시 밖으로 나왔으니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저자가 강한 표현(auffressen, S. 43)을 쓰긴 했지만, ‘먹어버렸다’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한다.

제우스가 크로노스를 제압한 다음에 “거인족과 전쟁이 시작되었다”(49쪽)고 해 놓았는데, 여기서 “거인족”은 ‘티탄족’(mit dem Titanen, S. 42)이 되어야 한다. 티탄들도 덩치가 컸겠지만 희랍 신화에서 ‘거인’이라는 말은 보통 기간테스를 가리키니 구별해서 써야 할 것이다. 뒤에 이들을 ‘거인’으로 옮겨질 수 있는 단어(Riesen, S. 43)로 지칭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덩치 큰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다.

제주 많은 신인 헤르메스가 발명했다는 것들 중에 “중량”(51쪽)이 들어 있는데, 아무리 신이 전능하다 해도 사물의 기본 성질을 발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도 ‘저울추’(Gewichte, S. 45)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디오니소스의 일행 중에 “고삐풀린 술의 여신 바코스 및 바코스의 무녀 마이나스들”(53쪽)이 있었다고 한 것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바코스는 디오니소스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술의 여신이라니, 그런 존재도 있었는가? 원문을 보면 ‘마이나테스와 바코스의 여신도들’(Manaden und Bacchantinnen, S. 45)로 되어 있다. 이들은 사실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들인데, 굳이 차이를 밝히자면 앞의 것은 어원에 따라 ‘깡기에 사로잡힌 자들’로 할 수 있겠다(mainomai, 미치다).

헤라클레스가 “헤스페리데스의 딸들이”(56쪽) 지키는 정원에서 황금사과를 가져왔다는 주장은 새로운 학설이다. 그 황금사과를 지키던 것은 ‘헤스페리데스’들이고 (aus dem Garten der Hesperiden, S. 47), 이들은 보통 아

틀라스의 딸들로 되어 있다.

아리아드네가 미로에 들어가는 테세우스에게 “빨간 실”(57쪽)을 주었다는 말도 이상하다. 원문에는, 그리고 널리 알려지기로도, 그저 ‘실’(einen Faden, S. 48)로 되어 있을 뿐이다. 트로이아의 왕자 파리스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 헤카베는 불길한 꿈을 꾸었고, 그 때문에 아이는 버려진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프리아모스가 “총사령관에게”(58쪽) 그 아기를 죽이라고 명했다는 말은, ‘목자에게’ 또는 ‘가축관리인에게’(den Verwalter seiner Herden, S. 49) 정도로 고쳐야 한다.

오뒷세우스가 외눈박이 괴물 폴리페모스의 동굴에 갇혔을 때, “부인과 함께” 그를 술 취하게 하고 눈을 지진 후 도망쳤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주장이다. 오뒷세우스의 부인 페넬로페의 역할은 남편의 모험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수많은 구혼자들에게 시달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동행했던 것은 부인이 아니라, ‘동료들(seine Gefährten, S. 51)’이다.

오뒷세우스가 세이렌들을 지나칠 때, “자신과 동료들의 귀에”(61쪽) 밀랍을 박아넣었다는 말도 놀랍다. 아도르노까지 인용했다면, 적어도 오뒷세우스 만큼은 귀를 열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귀를 막은 것은 그의 동료들 뿐이다(stopft er die Ohren seiner Leute mit Wachs, S. 32).

이상에서 우리 시대 ‘인기 스타’의 내면을 아주 조금만 살펴보았다. 사실은 지면 문제 때문에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는데, 이 책은 원저 자체가 큰 문제를 지니고 있다. 내용도 틀린 것이 많고, 용어들도 너무 튀는, 험한 말들로 선택되었다(가령, 제우스가 크로노스를 “벼락으로 쳐 죽였다”(49쪽, totete, S. 42)고 한 것은 틀린 말이다. 크로노스는 죽지 않았다. 한편 헤라 이전에 제우스의 짝이었던 테미스에 대해 언급하면서, 제목에 “제우스의 간통”(50쪽, Ehebrüche, S. 43)이라고 해 놓은 것은 용어선택이 잘못되었다).

누구는 저자가, 책 한 권으로 교양을 갖추겠다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그럴싸하긴 하지만, 다른 부분들을 훑어 보면 그다지 흠 잡을 것이 눈에 띄지 않으니, 저자가 고대 부분만 이상하게 쓴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도 많이 틀렸는데 내가 워낙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것인지, 모르겠다. 상당히 비싼 책을 구입하신 분들을 위해, 앞 부분만 틀렸기를 (이미 늦었지만) 기원해본다. ☞